

11일 Market Index	
코스피 2537.60 (+3.46)	코스닥 721.50 (-4.32)
금리 (연이자율) 2.560 (-0.036)	환율 (원/달러) 1452.80 (+0.50)

미국發 'R의 공포' 확산... 韓 주식·환율 등 시장 출렁

트럼프 高관세 정책 파장
코스피·코스닥 동반 하락
불확실성 높아져 환율 요동
美 경기 둔화 신호 감지
韓 제조업 전망도 어두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기침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뉴욕증시가 10일(현지시간)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다. /AP/뉴시스

이른바 미국발 'R(경기후퇴)의 공포'가 고개를 들면서 국내 자본시장이 출렁였다. 이는 불황을 감내하고서라도 고관세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따른 파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풀려나는 등 국내 정치상황이 다시 또 혼돈으로 빠져든 가운데 미국시장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불확실성이 가중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11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2.79포인트(1.28%) 내린 2537.60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도 전 거래일보다 4.32포인트(0.60%) 하락한 721.50로 마감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거래 증가 대비 5.9원 오른 1452.2원에 마감했다.

국내 지표들이 수일 내 다시 원위치를 찾아갈 것이라 전망이 나오는 반면, 미국 경기가 실제로 위축되면 금과 미 달러화 등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

는 더욱 짙어질 것이라 예측도 나온다. 이 경우 환율 안정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이민혁 국민은행 연구원은 "미국 경제 수장들의 경기 침체 발언에 뉴욕 증시가 급락하는 등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확산됐다"며 "뉴욕장 분위기가 국내 장에도 전이되면서 외국인 자금 이탈 등 수급 불안이 환율을 자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경제는 코로나19가 잦아들면서 줄곧 호황 국면을 보여 왔다. 지난 2~3년간 분기별·연간 경제성장률 비교에

서 미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을 훨씬 웃도는 경우가 많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경기침체를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과도가 있다"며 상대국에 매기려는 고관세로 인한 자국의 경기 침체를 용인할 방침을 내비쳤다.

이같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고 관세 전쟁에 집착하면서 미국 경제가 다른 국면을 맞게 됐다는 분석들이 나온다. 관세 정책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전개돼,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는 우려가 국제 투자은행(IB) 사이에서 제기된다.

미국 IB 골드만삭스는 10일(현지시간) 올해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4%에서 1.7%로 0.7%포인트(p)나 내렸다.

골드만삭스는 "행정부가 관세로 인한 단기 경제 둔화를 예상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하향조정의 이유를 밝혔다. 또 관세가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리고 금융 여건을 긴축시켜 기업들이 투자를 미루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경제가 이미 둔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도 나왔다. 지난해 4분기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3%를 기록했는데 이는 직전분기(3.1%)에 비해 1%p 가까이 떨어진 수치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 전망을 밝지 않게 보는 국제 투자은행(IB)들이 늘고 있다. HSBC는 "1월 산업생산 부진은 제조업 전반의 약세를 보여준다"며 "소매판매 감소세 전환과 함께 건설투자 등 투자 부진이 지속되면 (한국의) 1분기 성장률이 더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봤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초엔저'시대 끝 100엔=1000원 23개월來 '최고'

원·엔 환율이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아 100엔당 1000원을 목전에 뒀다. 일본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이 압박했다는 관측과 세계적인 안전자산 선호가 엔화 가치를 끌어올리는 가운데 엔화를 사는 가격(환율 우대 없이 환전하는 가격)은 이미 100엔당 1000원을 넘겼다.

11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엔 환율(매매기준율)은 100엔당 989.55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이는 전일 기록한 984.04원에서 5.51원(0.56%) 오른(원화 가치 하락, 엔화 가치 상승) 수준으로, 지난 2023년 4월 27일 이후 1년 11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연초(934.77원) 대비는 54.78원(5.86%) 올랐다.

아울러 이날 엔화의 사는 가격은 100엔당 1006.7원(환전 수수료 1.75% 기준)까지 올라 2일 연속으로 100엔당 1000원을 상회했다. 엔화가 1000원을 넘긴 것은 지난 2023년 5월이 마지막이다. 엔화 가치가 빠르게 치솟으면서, 원·엔 환율이 850원까지 하락했던 '초엔저'가 종료된 모습이다.

최근 엔화 가치가 빠르게 상승하는 것은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이 압박했다는 관측 때문이다. 앞서 일본은행은 지난해 3월 17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했고,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금리를 추가 인상했다.

세 차례에 걸친 금리 인상에도 일본 내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지난 10일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1월 근로통계조사'에 따르면 일본 내 5인 이상 기업의 1인당 임금은 월 29만5505엔(약 290만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물가변동을 고려한 실질임금은 1.8% 줄어, 3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다.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이르면 오는 18~19일 개최하는 금정위에서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이후로는 5월 1일이 유력하다. 금리 인상이 압박했다는 관측 가운데 일본의 10년물 국제 금리는 지난 10일 한때 1.575%까지 상승해 지난 2008년 이후 16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 <3면에 계속>

/안승진 기자 asj1231@

"차별화 된 AI에 독보적 화질... 프리미엄 TV 1등 목표"

LG 올레드·QNED TV 신제품
AI 전용 화질에 음질 '알파11' 추가
중견제 속 소프트웨어 경쟁력 부각

"1500달러 이상 프리미엄 시장에서 매출 1위를 목표로 하겠다"

LG전자는 11일 서울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2025 LG 올레드(유기발광다이오드)·QNED TV 신제품 브리핑'을 열었다. LG전자는 주력 제품인 올레드 TV와 QNED TV 두 제품의 인공지능(AI) 기능을 대폭 개선하는 한편, 동시 판매하는 전략으로 프리미엄 시장 장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프리미엄 시장은 삼성과 LG전자가 선두를 다투고 있지만 최근 중국 가전 기업들이 초대형 LCD TV를 통해 시장에 침투한 상황이다. 영국 시장조사 기관 옴디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2500달러 이상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50.5%, LG전자는 30.6%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중국 TV 주요 브랜드인 TCL은 1%, 하이센스는 0.5%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LG전자의



LG전자 허승현 AI서비스개발팀장이 매직 리모컨에 탑재된 AI 버튼을 통해 TV 사용 중 문의 사항이나 문제 발생 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AI 챗봇' 기능을 시연하고 있다. /LG전자

주력 제품인 올레드TV는 시장에서 12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LG전자는 AI 기능이 대폭 강화된 올레드 TV와 QNED TV를 전략적 무기로 내세웠다. 두 모델에는 OLED 전용 화질과 함께 음질 AI 프로세서 '알파11'를 추가했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MS) 코파일럿, 챗GPT4, 구글 제미나이 등 생성형 AI를 탑재한 결과물이다. 알파11은 TV 화면을 픽셀 단위로

세분화해 화질을 업스케일링하고 밝기를 조정한다.

특히 LG전자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SOC인 A11과 웹OS를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꼽았다. 영상 재생과 동시에 화질과 음성을 개선하는 AI 업스케일링 기능을 구현하려면 고성능 SoC가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신제품은 ▲보이스 ID ▲사용자 맞춤 화질 선택 ▲셀프 수리 기능 등이 가능하다. '보이스 ID'

은 목소리로 사용자를 구분해 개인이 선호하는 콘텐츠를 제공한다. 또 사용자가 화질을 직접 선택할 수 수도 있다. 이와 함께 'AI 챗봇'을 활용한 셀프 수리도 신제품의 핵심 AI 기능이다.

LG전자는 중국 TV의 추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중국 기업이 패널과 같은 하드웨어는 많이 따라왔지만 '소프트웨어' 기술은 LG전자가 앞선다는 설명이다. 백 상무는 "중국 제품의 경우 무료채널은 한국에서 영어만 지원되지만, LG TV는 150개국 언어를 제공하는 등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미 정부의 관세 정책과 관련된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관세를 덜 부과 받는 국가에서 생산하는 방법 밖에 없다"며 "다만, 미국에 공장을 지으려면 SOC 등 공장이 있어야 해서 당장 해결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출시할 77인치 올레드 TV의 국내 출하가는 640만~900만원, 75인치 QNED TV는 319만~469만원이다. /구남영 기자 koogja_tea@

메트로 한줄뉴스



▲ 조국혁신당, 대전 4개구 '지역위원장' 임명... 대덕은 대행
▲ 한미, 연합 공중강습훈련 실시... 한국 대대장이 미 중대 통제 /사진 뉴시스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장외투쟁으로 현재 압박하지 않을 것"
▲ 한미, 연합 공중강습훈련 실시... 한국 대대장이 미 중대 통제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올해 6월부터 시행
▲ 정부, 시리아와 수교 잠정 합의... UN 마지막 미수곡